

2021년 7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생활소비진흥과 과 장 이용직(044-201-2271), 서기관 박재화(2285) / 제공일: 7월 16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김현수 농식품부 장관,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

-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장관은 7월 16일(금) 오전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방문하였다.
 -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다중 이용 시설로,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요 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”을 강조하고,
 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·개인 방역관리 철저, 환기 및 주기적 소독실시,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.
 - 아울러 “지자체·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 말했다.
- 또한, 소관 시설별 방역 ‘장관 책임제*’ 시행에 따라 공영농산물 도매시장, 농촌관광시설 등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** 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

*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정책회의(4.12.) 후속조치로 추진(4.15~상황 안정 시까지)

** (10개 분야) 도축장, 경마시설, 가축시장, 동물판매업(경매), 농촌관광시설, 공영 농산물도매시장, 농산물산지유통센터, 화훼공판장,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, 바로마켓